

# ‘독주’ 두산, 2위 싸움 치열한 SK · 한화와 차례로 격돌

63승30패 두산, 2위와 무려 10경기차...2위 싸움에도 영향  
두산전 상대전적, 한화 강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SK 좋아

선두를 질주 중인 두산 베어스가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SK와 이만스와 한화 이글스를 차례로 만난다.  
63승 30패를 기록한 두산과 2위 SK의 격차는 무려 10경기다. 독주 체제를 갖춘 두산이 2위 싸움 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두산은 20~22일 LG 트윈스와의 원정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올 시즌 두산전에서 8전 전패를 당하며 두산전 10연패에 빠진 LG는 2위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났다. 후반기가 시작될 때 2위 한화에 4경기 차, 3위 SK에 2경기 차 뒤진 4위였던 LG는 현재 2위 SK, 3위 한화에 3경기 차로 뒤져있다.  
LG를 상대한 두산은 공교롭게도 이번주 내내 또 다른 2위 경쟁자를 상대한다. 24~26일 인천 SK행복드립구장에서 SK와 원정경기를 치르고, 27~29일 잠실구장에서 한화와 맞대결한다.  
52승 1무 39패를 기록 중인 SK와 54승 41패 한화는 승차없이 승률 3위 차로 2, 3위를 나눠가지고

있다. 두산과의 3연전 결과가 2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SK는 올 시즌 두산전 7경기에서 2승 5패로 열세를 보였다. 한화도 올해 두산과의 상대전적에서 밀려 있지만, 그래도 5승 4패로 비교적 대등하다.  
SK 타자들은 두산전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 시즌 두산전 팀 타율 0.248에 그쳤다. 시즌 팀 타율 0.281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팀 홈런 155개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13개에 그쳤다.  
0.329로 팀 내 타율 1위인 박이리도 시즌 타율 0.241에 그쳤다. 팀 내 타율 2위(0.329)인 이재원도 두산전에서는 타율 0.188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간판 타자 최정은 두산전에서 홈런 4방을 몰아치며 7개의 타점을 올렸으나 타율이 0.240으로 저조했다. 제이미 로맥도 타율 0.250 2홈런으로 두산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미운드도 두산 타선을 헐거워했

다. 팀 평균자책점 4.40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SK의 두산전 팀 평균자책점은 6.02에 달한다.  
2위 경쟁팀 중 두산전 상대전적이 가장 좋은 한화는 두산전에서 팀 타율 0.286으로 비교적 강한 면모를 보였다. 시즌 팀 타율 0.274와 비교해 두산전에서 더 잘쳤다.  
특히 제리드 호인이 두산과의 9경기에서 타율 0.400 4홈런 12타점으로 필립 날았다. 리드오피 이용규도 타율 0.333, 출루율 0.471로 두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다만 올해 두산전 4경기 타율 0.429로 활약한 김태균의 부상 공백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팀 평균자책점 4.50으로 2위인 한화의 두산전 평균자책점은 5.89로 비교적 높았다.  
최근 분위기에서는 SK가 앞선다. SK는 7월 들어 치른 15경기에서 9승 6패를 기록했다. 후반기 시작 이후 6경기에서는 4승 2패를 거뒀다.  
SK는 두산과의 3연전에서 박종훈과 양현산, 산체스, 메릴, 켈리, 차레로 선발로 내세울 전망이다. 외



국인 원투 펀치가 모두 출격한다. 반면 한화는 7월이 시작된 이후 16경기에서 6승 9패로 주춤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뉴스시스

## 피츠버그 헌팅턴 단장 “강정호 손목부상 회복, 활동 재개”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방망이를 다시 잡는다. 현지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23일(한국시간)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이 말한 바에 따르면 강정호가 야구 관련 활동을 다시 시작

했다’고 보도했다. 헌팅턴 단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강정호가 받은 치료와 휴식 한 시간이 손목 부상 회복에 충분했기를 바란다”며 “그가 언제부터 야구와 관련된 활동을 할지는 시

## 김국영, 일본 트와일라잇 게임 100m · 400m 계주 우승

### 여자 100m 허들 출전 정혜림도 13초30 기록 우승

한국 육상 단거리의 간판스타 김국영(27·광주광역시청)이 트와일라잇 게임 남자 100m와 400m 계주에서 우승했다. 김국영은 22일 일본 가나가와현의 게이오기주쿠대학 히요시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14회 트와일라잇 게임 남자 100m에서 10초22로 1위를 차지했다. 초속 1.1m의 맞바람을 맞으며



여자 100m 허들에 출전한 정혜림(31·광주광역시청)은 13초30을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2010년 이연경이 세운 여자 100m 허들 한국 기록(13초00)에는 0.30초 뒤처지는 기록이다. 뉴스시스

## 남자 펜싱 김정환, 세계선수권 사브르 개인전 첫 우승

### 한국 선수 금메달, 2010년 이후 8년만에 쾌거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마형 김정환(35·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 펜싱 사브르 대표팀은 중국 우시에서 열린 2018 세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김정환은 22일(한국시간) 열린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최인정(계룡시청)이 16강에 올랐으나 코랄리네 비탈리스(프랑스)에게 패배했다. 최인정은 이번 대회에서 9위에 올랐다.

## 이강인 “발렌시아는 7년을 보낸 팀...재계약 기쁘다”

“1군 선수들과 훈련 큰 도움...많이 배우고파”



“7년을 보낸 발렌시아는 나에게 인생과 같습니다” 스페인 명문클럽 발렌시아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이강인이 1군 무대에서 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

냈다. 이강인은 23일(한국시간) 발렌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재계약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훈련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강인은 “발렌시아에 입단한 지 7년이 됐다. 거의 내 인생의 전부와도 같다”며 “구단 임원과 동료들 모두 나에게 잘 대해준다”라고 강조했다. 발렌시아는 21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과 2022년 6월30일까지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바이아웃은 8000만 유로(1057억 원)다. 다른 구단이 계약 기간 내 이강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8000만 유로가 넘는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발렌시아 감독은 B팀인 메스티야 소속의 이강인을 1군팀의 스위스 전지훈련에 합류시키며 1군 무대 호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 처음 왔을 때 나의 꿈은 메스티야에서 뛰는 것이었다”며 “1군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1군 선수들과 훈련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전했다. 뉴스시스

## 유영,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여자 싱글 우승

### 남자 싱글 차영현이 1위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유영(14·과천중)이 2018~2019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파견 선발전에서 우승했다. 유영은 22일 태릉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7.97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67.97점)과 합해 총 185.94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유영은 이날 기술점수(TES) 60.77점, 예술점수(PCS) 59.20점에 감점 2점을 받았고,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유영이 이날 받은 점수는 그가 올해 1월 종합선수권대회에

서 세운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국내대회 최고점(204.68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62.68점을 받아 2위에 오른 이혜인(13·한강중)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TES 62.05점, PCS 52.24점, 감점 1점 등 113.29점을 받아 총 175.97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유영, 임은수(15·한강중)과 함께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기대주로 손꼽히는 김예림(15·도장중)은 172.33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남자 싱글에서는 차영현(15·대화중)이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117.24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61.45점)과 합해 총 178.6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뉴스시스